

### “부실 예보시스템 못믿겠다” 주부들 반응 민감 자체 카페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하고 대응

#### 광주·전남 학 바뀐 생활패턴

#1. 두 살 배기 아들을 둔 주부 김모(33)씨는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패밀리 레스토랑에 예약해둔 남편(35)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심한 미세먼지가 자칫면역력 약한 아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김씨는 남편과 피자를 주문했지만 이마저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김씨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야외 활동을 자제해 배달 음식 주문도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광주·전남 시민들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있다. 짙은 미세먼지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수영장·헬스장·탁구장 등이 북적대는가 하면, 배달 음식 주문은 늘어나는 추세다. 우중충한 날씨로 인해 노점상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주부들은 실외 활동을 할 경우 긴

장을 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환경 당국의 ‘부실한’ 예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모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방법 등 피해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배달음식 ‘맑음’노점상 ‘호림’=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3일~26일까지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95 $\mu\text{g}/\text{m}^3$ ~121 $\mu\text{g}/\text{m}^3$ 에 달했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농도 5등급 중 ‘나쁨’ 단계로 노약자·심질환자 등은 야외 활동을 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평균 20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면 주의보, 2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

짙은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들로 배달음식점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동구 서석동 S중국 음식점은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00 그릇가량 배달을 했는데 최근 들어선 20~30% 증가한 120~130그릇을 배달하고 있다. 광산구 월곡동 P피자 가게도 배달 물량이 평

# 미세먼지 공포

### 실내활동 선호...수영장·헬스장·탁구장 등 북적 배달음식점 반짝 특수·노점상 매출 급감 울상

소 대비 20%가량 늘었다는 게 주인 설명이다. 반면, 동구 충장로와 북구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떡볶이·순대·어묵·튀김·과일 등 노점상을 하는 주인들은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고 울상이다.

노점상 김모(51)씨는 “과일을 차 밖에 놔두면 먼지가 수북이 쌓일 정도로, 밖에 진열해두더라도 비닐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전시 효과가 떨어져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주부모임 카페 최고 ‘인기’=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환경당국의 미세먼지 적중률도 떨어지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6일 호남권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지만 정작 당일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광주·전남지역 초미세먼지 예보는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정보를 확

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녀를 둔 주부들은 인터넷을 통한 자체 모임 카페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인 ‘광주지역 주부들의 모임’은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줘 주부들이 외출 때 반드시 챙겨보는 ‘인기’ 사이트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앞서 카페 공지문을 확인할 정도다.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질 상태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해당 지역 거주 회원이 기상청 수치 뿐 아니라 실제 기상 상황까지 알려주는가 하면, 환기·외출법·빨래 건조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있다.

주부 안모(37)씨는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외출할 땐 반드시 카페를 확인한 뒤 외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해당 정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올리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무상급식 학교 4년새 3배 급증 전남 94.5% 최고

무상급식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된 이래 4년 만에 실시 학교가 세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1483개교 가운데 72.7%에 달하는 8351개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시행 학교로 간주해 계산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4.5%로 가장 높았고, 전북(90.8%), 강원(88.9%), 충남(83.9%), 제주(83.8%), 충북(82.3%), 세종(83.0%), 경기(80.2%) 등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많았다. 반면 대구는 전체 학교 435개교 가운데 84개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그 비율이 19.3%로 가장 낮았고, 울산도 36.9%로 눈에 띄게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비율이 94.1%로 가장 높았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서 사실상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76.3%, 고등학교는 13.3%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무상급식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됐던 2010년 3월 당시 초·중·고등학교 1만1228개 중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2657개교로 실시 비율이 23.7%에 그쳤으나 올해는 72.7%로 세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무상급식 실시학교가 2개교(0.2%)에 불과했던 서울이 올해 938개교(72.0%)로 증가했고, 광주 역시 무상급식 비율이 4년 사이 5.4%에서 78.2%로, 강원은 7.1%에서 88.9%로 각각 급증했다.

김춘진 의원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심질환자·노약자 외출 자제...외출시 마스크 착용

#### 미세먼지 대처법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를 ‘좋은’,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좋은’(0~30 $\mu\text{g}/\text{m}^3$ )과 ‘보통’(31~80 $\mu\text{g}/\text{m}^3$ )의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 요령이 없다.

하지만 ‘약간 나쁨’(81~120 $\mu\text{g}/\text{m}^3$ ) 단계부터는 심질환자·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약간 나쁨’에서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들은 특히 주의해

야 한다.

‘나쁨’(121~200 $\mu\text{g}/\text{m}^3$ ) 단계에는 노약자와 심질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매우 나쁨’(201 $\mu\text{g}/\text{m}^3$ 이상)의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황사방지’, ‘황사마스크’ 표시가 돼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귀가 후 즉시 렌즈를 빼고 인공눈물로 눈을 씻어 주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미세먼지 대처 요령

- 외출 삼가고 외출시 황사용 마스크 착용
- 귀가후 손발 씻고 입과 코는 물로 헹굼
- 물·차 등 자주 마셔 수분공급 충분히
- 숙면·신체리듬 유지 통해 면역력 유지

●장시간 노출시 영향

- 만성 심폐질환·폐암 발생 가능성 증가

●미세먼지 크기 비교

### 배·해조류 좋고 물 자주 마셔야...삼겹살은 ‘금물’

####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최근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엔 배·녹황색 채소·물·마늘·생강·해조류 등이 있다. 물은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평소 보다 많이 마시는 게 좋다.

녹황색 채소인 브로콜리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다. 배는 폐의 염증을 가라앉혀 좋고, 생강은 기침과 가래를 완

화해 준다. 마늘은 우리 몸 속 면역력을 높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좋다.

반면, 황사가 있는 날 먹으면 좋다고 알려진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미세먼지에는 상극이라고 밝혀졌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미세먼지 속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를 돕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돼지고기가 상극이라는 정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돼지고기 먹고 싶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배고파”,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돼지고기인 줄 알았더니”,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삼겹살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차량탈이 군인 증거 없애려 불 질러



○광주에서 차량탈이를 한 뒤 증거를 없애려고 차량에 불을 낸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혀 군 병대에 인계.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육군 모부대 소속 김모(21) 병장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도로에 주차된 이모(53)씨의 그레이스 승합차에서 현금 3만 원을 훔친 뒤 조수석에 불을 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김 병장을 검거했는데, 경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술을 마시고 순간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m <sup>2</sup> / 76.42m <sup>2</sup>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m <sup>2</sup>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m <sup>2</sup>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m <sup>2</sup> / 216.87m <sup>2</sup> / 582.45m <sup>2</sup>
5층	아스터어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公 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했어요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